농협순창군지부, 돌봄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농협순창군지부(지부장 김현수)와 순창농협(조합장 선재식)은 NH농촌현장봉사단과 함께 6일 순창군 인계면에서 돌봄대상농가 3가구를 찾아 노후화된 싱크대와 창호 교체,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활동을 펼쳤다.

주거환경개선은 주택의 노후화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위해 농업인행복콜센터(1522-5000)의 상담과 NH농촌현장봉사단의 현장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원을 받은 김oo(여, 75세)어르신은 "노후화된 주방싱크대로 불편함이 커도 교체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농협이 내 일처럼 교체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현수 지부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돌봄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협은 "NH농촌현장봉사단을 통해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복지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농협무주군지부 · 구천동농협, 취약농가 쌀 나눔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지부장 오영석)와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은 6일 취약농가에 쌀(100만원 상당)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 5월 실시한 임직원 걸음기부 캠페인 목표 5,000만보 달성을 기념하여 맛좋은 전북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쌀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마련했으며 무주군 관내 어려운 취약농가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오영석 지부장은"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산림조합, 선도산림단지 산주 · 주민설명회

장수군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은 07월 05일 선도산림경영단지내 호응과 관심을 유도하고자 장안산 도깨비권역센터에서 장수군 및 장수군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 등 3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주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장수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장수군산림조합이 경영주체로 선정돼 산주로부터 사유림경영에 대한 동의를 득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지화 산림경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주 및 주민에게 본 사업에 대한 소개와 내용을 전달하고 산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상대 조합장은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으로 산림을 이용한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산주분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책임감을 갖고 사유림경영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김제 부량면 지사보협의체, 3차 정기회의 개최

부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주헌)는 6일 부량면행정복지센터에서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부금 내역, 임기만료에 따른 협의체 위원 재구성, 7월 홀몸어르신 보양음식지원사업 등에 대한 운영방안을 논의하면서 더위에 지친 독거노인들의 원기회복을 위해 협의체위원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량면 협의체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홀몸어르신들에게는 생필품꾸러미지원, 저소득층 한부모 아동들에게는 운동화상품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박주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는 "어려운 시기에 협의체의 다양한 사업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해영 부량면장은 "민간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우리 지역 이웃에게 사랑의 온기를 함께 느끼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공공에서도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달의 함께하는 우수농협인상 수상'

전주원예농협 문대중 팀장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주원예농협 문대중 팀장을 '전북농협 이달의 함께하는 우수농협인'으로 선정하고 6일 정례조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문대중 팀장은 농촌인력중개사업의 센터장을 역임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미입국에 따른 농촌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중개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21년 3,017명의 인력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중개하는 등 농번기 농촌 인력부족 해소에 많은 역할을 했다.

또한,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농작물 경작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적기에 영농지도 및 병해충 정보 제공, 적절한 방제를 유도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진에 기여해왔다.

문대중 팀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농업·농촌 발전과 조합원 복지증진,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기자

임실군, 3년 연속 임도사업평가 우수기관 선정

임실군이 전라북도와 민간 전문평가위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2022년 임도사업평가(2021년 신설임도)에서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부문에서 3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021년 임도신설사업 대상지를 대상으로 대학교수, 산림공학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에 현장평가와 자료평가를 통해 실시됐다.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임도는 임실군에서 발주하여 운암면 운암리 일원에 개설한 운암운종 간선임도 1km 구간으로 시공자는 임실군산림조합이다.

해당 구간은 임도의 계획수립 적정성, 시행과정 적절성 등 자료평가 항목과 절·성토 사면과 노면의 안정성 및 배수시설의 적정성, 환경 친화성 등 현지 평가 항목에서 평가위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면서 2023년도 임도사업 예산에 국·도비 인센티브를 증액받게 되어 재정이 열악한 임실군의 임도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은 전체 면적 중 산지면적이 68%로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나무재선충 방제, 산불 예방 등에 효율적인 임도개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농협-전북대, 학생 80여명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5일부터 8까지 4일간 임실군 오수면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진행한다.

이번 일손돕기는 지난해 전북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 전북농협, 전북도 간에 체결한 농촌인력지원 활성화 협약에 따라 추진됐으며, 전북대학교 학생 80여 명은 고추수확, 김매기, 마을청소 등 농촌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6일에는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 이진산 농협임실군지부장, 정철석 오수관촌농협 조합장 등이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동참했다.

이성재 의장은 "전북대 학생들의 적극적인 일손돕기로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임실군의회도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임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산 지부장은 "대학생들이 농촌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농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대학생들과 함께 일손부족 해소와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여의동지사협, 초복 맞이 삼계탕 봉사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희열)은 초복을 맞아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2022년 행복동네만들기 공모사업인 '이열치열! 원기회복 복달임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 주민센터, 엠마오노인복지센터, 동일노인복지센터와 함께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식사가 어려운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최희열 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지친 심신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윤상기자

남노갈비서곡점, 사랑의 중식봉사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에 위치한 '남노갈비서곡점'이 6일 관내 어르신 50여 명을 모시고 정성으로 마련한 사랑의 중식봉사를 추진했다.

앞서 남노갈비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수익의 일부를 효자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정기 기부하고 있는 착한가게로 선정된 바 있으며, 따뜻한 지역 나눔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박승택 대표는 "이번 행사로 어르신들을 뵙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지속적이고 따뜻한 나눔행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순창군,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20여명 수료식 개최

순창군은 지난 5일 군립도서관 다목적 홀에서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순창읍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9주간 매주 화요일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주민에게 도시재생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공동체 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사례 소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수강생 20명이 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해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을 마쳤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도시재생 이론수업과 현장토의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우수 사례지역인 목포시 서산동, 광주 송정역 시장 등의 답사를 통해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이날 수료식에서 수료자 전원은 "주민이 주도해 성장하는 순창군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힘찬 의지와 도시재생으로 지역을 회복시키자는 다짐을 함께 했다.

군은 이번 도시재생대학 운영 과정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교육생들에게 장기간 동안의 교육에 노고의 인사를 전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수강생들이 도지재생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기본계획컨설팅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6일, 각계 복지전문가들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심화 컨설팅"을 개최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행안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수석 컨설턴트 오단이 교수, 남원시 보건복지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 읍면동장,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 민간 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현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 남원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분석하였으며, 유사 지자체 사례비교 등을 비롯해 남원시만의 지역특성, 인구유형, 읍면동 조직 모형 등을 고려해 보완점을 찾아내고 우수사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남원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에 이번 컨설팅에서 도출된 지역맞춤형 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재하 희망복지지원계장은 "어려운 시기에 복지전문가들이 남원시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컨설팅을 통해 보건복지 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운영대의원회의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는 6일, 지사 회의실에서 상반기 운영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2년간 공사 전반적인 경영에 필요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8명의 운영대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통합 물관리 대응방안 정책 및 농업분야에서 공사의 역할 등 설명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운영대의원들은 통합물관리 추진현황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농업 분야에서 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농업 전반에 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충호 지사장은 "장마철이지만 관내 가뭄이 심각한 상태로 물 절약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지역농업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